

宋代 詩味論의 배경과 특색 연구*

李 致 洙**

<目 次>

- | | |
|-----------------|----------------|
| I. 서 언 | IV. 송대 시미론의 전개 |
| II. 중국 시미론의 형성 | V. 송대 시미론의 특색 |
| III. 송대 시미론의 배경 | VI. 결 어 |

I. 서 언

고대 중국에서는 중국 고유의 음식 문화에서 비롯되어 오래 전부터 ‘味’라는 개념으로 시를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점차 중국적 특색이 농후한 詩學 이론인 ‘詩味論’이 형성되었다. 시미론의 형성과 발전은 중국인들의 시가의 審美 본질과 특징에 대한 인식이 점차 심화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시인들은 시의 오묘함은 ‘맛’을 담아내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맛’이란 본래 음식에 대한 감각인데, 先秦 시기부터 이 말로 예술적 미감을 비유하였고, 西晉의 陸機 이래로 이 ‘味’자가 詩文의 이론에 사용되었다. 이후 劉勰의 味論, 鍾嶸의 ‘滋味’ 관련 논의, 司空圖의 ‘味外之旨’說 등 여러 사람에 의해 이론적 체계가 구체화되고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맛[味]의 문제는 시의 창작과 평론(감상)의 주요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중국의 고전 문학비평은 송대에 이르러 中興期를 맞이하여 詩話라는 새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NRF-2007-327-A00564)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로운 양식을 통하여 다양한 시론이 전개되었다. 송대의 시론 중,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詩味論이다. 시미론의 역사를 나누어 보면, 대체로 先秦에서 晉宋 때까지가 萌芽期이고, 齊梁에서 唐代까지는 形成期이며, 宋代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發展期를 맞이하게 된다. 송대에는 '味'로 詩와 文을 논하는 것이 더욱 보편화되었다. 송대의 시가 唐詩와 비견되는 성취를 거두고 특색을 가지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미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송대의 시 및 송대의 시학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미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송대 시미론의 배경과 전개양상 및 특색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중국 시미론의 형성

고대 중국에서는 음식문화가 발달하면서 '味'라는 글자가 단순하게 味覺을 지칭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철학 영역에서도 쓰였으며, 뒤에는 문학 영역에 들어와 審美 범주의 하나로 되면서 '詩味論'이 형성되었다. 이 詩味論은 산생과 전개의 시기를 거쳐 宋代에 이르러 주요 시학의 내용의 하나가 되었다.

1. 詩味論의 萌芽期(先秦 - 晉宋)

'味'는 본래 구체적인 음식물이 사람의 입과 혀에 주는 감각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뒤에는 점차 정신영역에도 쓰여져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특질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先秦 시대에 孔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고기의 맛[肉味]과 비교하였는데, 《論語·述而》篇에 “공자께서 齊나라에서 韶樂을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으며, ‘음악을 만든 것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고 말했다.”¹⁾는 기록이 있다.

1) “子在齊聞韶，三月不知肉味，曰，不圖爲樂之至於斯也。”(毛子水 註譯，〈論語今

또 《老子》에서는 道의 본체를 설명하는 데에 ‘味’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제35장에 “道를 입으로 말하면 담백하여 아무 맛도 없다.”²⁾는 말이 있고, 제63장에서는 “하는 것 없이 하고, 일 없음으로 일을 삼고, 맛없음을 맛으로 삼는다.”³⁾고 하였다.

문학의 경우에 ‘味’라는 말로 詩文을 처음 평한 例는 晉의 陸機가 지은 <文賦>에 보인다. 그는 창작에서 피하여야 할 다섯 가지 병폐 중의 하나로 ‘(글에) 양념을 얹은 고깃국의 남은 뒷맛마저 곁여되어 있는’ 경우를 들었다.⁴⁾ 문학에서의 味論은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2. 詩味論의 形成期(齊梁 - 唐代)

詩味論은 齊梁에 이르면 바야흐로 形成期에 들어선다. 우선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陸機에 비해 ‘味’를 다양하게 언급하였으며, 특히 ‘味’의 예술적 표현 문제 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劉勰에 있어서, ‘味’는 다른 사항, 이를테면 ‘風骨’ 등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주요 요소의 하나로서 詩文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었으며 따로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문학의 여러 장르 중, 특히 詩에 있어서의 ‘味’의 문제에 주목한 사람은 같은 시대의 鍾嶸으로, 《詩品》에서 五言詩가 四言詩보다 뛰어난 점을 논하면서 ‘味’, 즉 ‘滋味’를 논하였다. 그는 ‘味’의 審美 本質로서의 특색과 심미비평의 기준으로서의 특색을 처음으로 분명히 하였다. 晚唐의 司空圖에 이르러서는 韻致 밖의 韻致를 주장하는 ‘韻外之致’와, 맛 밖의 맛을 주장하는 ‘味外之旨’說이 제기되었다. 이전의 鍾嶸이 ‘詩內味’를

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98쪽).

2) “道之出口, 淡乎其無味.”(陳鼓應 註譯, 《老子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140쪽).

3)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陳鼓應 註譯, 《老子今註今譯》, 203쪽).

4) 陸機, <文賦>: “闕大羹之遺味.”(陳宏天 等 主編, 《昭明文選譯注》(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8), 904쪽).

주장하였다면 사공도는 한 걸음 더 나가 ‘詩外味’를 말하였으며, 단순히 ‘詩味’의 존재를 말하던 데서 이 ‘詩味’의 多樣性을 밝혀주어, 시미론은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Ⅲ. 송대 시미론의 배경

1. 시미론 역사의 내적 배경

송대에 들어서면 이상의 논의를 이어 詩味論이 보다 많은 사람에 의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송대의 시인이나 시론가들의 詩味에 관한 논의를 보면 중국 시미론 형성기의 주요 이론가였던 劉勰과 鍾嶸, 그리고 司空圖 등의 주장을 대체로 계승하였다. 이를테면 魏泰와 張戒는 유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蘇軾과 楊萬里 등은 司空圖의 ‘味外之旨’ 說을 찬동하였다.

魏泰는 시에서 ‘餘味’를 중시하였는데 그 연원은 六朝 시대 劉勰의 《文心雕龍》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문학을 논하면서 ‘餘味’라는 말을 처음 직접 사용한 것은 유협으로, “깊이 있는 문장은 함축적이며 문체가 아름답고, 남아있는 맛[餘味]이 굵이굵이 내포되어 있네.”⁵⁾라고 하였고, 聖人の 經典은 “옛날 것이어서 비록 오래되었지만 남아있는 맛[餘味]은 날로 새롭네.”⁶⁾라고 하였다. 張戒는 《歲寒堂詩話》에서 劉勰이 “감정이 말 밖에 있는 것을 ‘隱’이라 하고, 형상이 눈 앞에 충분히 드러나는 것을 ‘秀’라고 한다.”⁷⁾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유협에 의하면 ‘隱’은 말 밖에 함

5) 《文心雕龍·隱秀》: “深文隱蔚, 餘味曲包.”(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361쪽).

6) 《文心雕龍·宗經》: “往者雖舊, 餘味日新.”(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注》, 19쪽).

7) “情在詞外曰隱, 狀溢目前曰秀.”(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南京: 鳳凰出版社, 2006) 권3, 3240쪽). 아래에서는 ‘《宋詩話全編》’을 ‘《全編》’이라 簡稱함.

축된 뜻을 가리키고, ‘秀’는 작품 안에서 가장 빼어난 말을 가리킨다.⁸⁾ 장계의 意味說은 바로 유헬의 이러한 味論에 바탕을 두었다.

蘇軾은 司空圖의 설을 계승하여, <書黃子思詩集後>에서 그의 詩味論을 추앙하는 뜻을 비쳤다.

唐末에 司空圖는 전쟁을 겪는 가운데서도 詩文이 高雅하여 태평 시대의 遺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시를 논하면서 “매실은 맛이 실 뿐이고 소금은 짠 뿐이다. 음식에 소금과 매실이 없을 수 없으나 좋은 맛은 언제나 짜거나 시거나 하는 밖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는 자기의 시 중에서 문자 밖에서 나타낸 표현이 있는 二十四韻을 스스로 열거한 것 일텐데,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묘미를 알지 못했다. 나는 그의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 읽으면서 슬퍼한다.⁹⁾

南宋의 양만리는 讀書를 예로 들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味外之味’를 알아야 하며, ‘味外之味’를 모르면서 나는 책을 읽을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¹⁰⁾ 이 ‘味外之味’는 바로 이미 司空圖에서 부터 주장되어온 것이다.

이밖에도, 嚴羽는 <<滄浪詩話·詩辨>>편에서 盛唐의 시인들은 논하면서 이들의 시가 “말은 다했어도 뜻은 다함이 없다.”¹¹⁾고 하였는데, 이것은 鍾嶸이 ‘興’을 풀이하며 “글은 이미 다하였으나 뜻은 남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이며¹²⁾ 詩味の 특성 중의 하나이다.

- 8) <<文心雕龍·隱秀>>: “隱也者, 文外之重旨者也, 秀也者, 篇中之獨拔者也.”(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注>>, 359쪽).
- 9) “唐末司空圖, 崎嶇兵亂之間, 而詩文高雅, 猶有承平之遺風. 其論詩曰, ‘梅止於酸, 鹽止於鹹, 飲食不可無鹽、梅, 而其美常在鹹、酸之外.’ 蓋自列其詩之有得於文字之表者二十四韻, 恨當時不識其妙. 予三復其言而悲之.”(孔凡禮 點校, <<蘇軾文集>>(北京: 中華書局, 2004) 권67, 2124-2125쪽.)
- 10) “讀書必知味外之味, 不知味外之味而曰我能讀書者, 否也.”(<<誠齋集>> 권78 <習齋論語講義序>)(<<全編>> 권6, 5966쪽).
- 11) “言有盡而意無窮.”(<<全編>> 권9, 8720쪽).
- 12) “文已盡而意有餘.”(何文煥 輯, <<歷代詩話>>(北京: 中華書局, 2001) 3쪽에서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 이전에 詩味說을 말한 사람 가운데, 송대의 시인들에게 비교적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宋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晚唐의 司空圖였다. 그러나 송대의 시인들은 사공도의 시미론을 단순하게 계승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보충하고 발전시켰으며, 또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였다.

2. 송대의 문화, 학술 사상적 배경

송대에 이르면 儒佛道 三教의 사상이 서로 浸透 融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유학은 송대에 이르러 인격의 완성과 心性의 수양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대부와 문인들은 虛靜 공부를 중시하며 心性의 평화를 추구하는 理學에 道家의 冲淡과 禪宗의 清寂을 결합하여 자기 내면을 다스렸다. 이런 생활태도가 시가 창작에 영향을 미쳐 詩가 澹泊과 平靜의 경향을 보였다. 특히 詩壇의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북송 초기에는 唐末 五代之의 浮艷한 시풍이 그대로 이어졌으며, 그중에서도 西崑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 서곤체가 浮艷한 형식주의에 빠지자 시단에는 詩歌를 革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은 儒道 復古運動과 趣旨를 같이 하였다. 石介는 道學家의 입장에서 楊億 등의 西崑體가 景物을 아름답게 꾸미고 吟風弄月하면서 聖人의 道를 해친다고 비판하였고¹³⁾, 歐陽修와 梅堯臣·蘇舜欽 등에 의해 晚唐五代의 시풍과 西崑體 末流를 대상으로 하는 詩歌 革新運動이 본격화되었으며, 매요신은 혁신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平淡’을 통하여 浮艷한 시풍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평담’은 이후 송대의 士인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境界가 되어,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송대의 書法 또한 평담, 澹泊한 특색을 보

재인용.)

13) 石介, 《徂徠集》 下, <怪說> 中: “今楊億窮妍極態, 綴風月, 弄花草, 淫巧侈麗, 浮華纂組, 搜聖人之經, 破碎聖人之言, 離析聖人之意, 傷聖人之道.”(郭預衡 主編, 《中國古代文學史長編(宋遼金卷)》(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6, 93쪽).

었다. 이처럼 ‘평담’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 ‘味’를 추구할 때에도 그 ‘味’는 바로 ‘평담’을 중시하기 마련이다.

內面の 省察을 중시하는 사상과 심리는 글씨와 그림, 그리고 詩에 영향을 미쳐 意趣의 표현을 중시하였다. 서예의 경우, 晉代의 글씨 쓰는 사람들이 韻을 숭상하고, 唐代의 사람들은 法을 숭상하였다면, 송대 사람들은 意를 숭상하였다는 평이 있듯이, 송대에는 尙意의 書風이 성행하였다.¹⁴⁾ 그림의 경우, 구양수 또한 옛날의 화가들이 意趣의 표달을 중시하여 그림을 그릴 때 ‘意趣를 그려내고 外形은 그리지 않은 것’¹⁵⁾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송대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詩學의 경우에도 감정의 표출을 특색으로 하는 唐詩의 抒情 전통과 달리 이성적 입장에서 意趣의 표달을 중시하는 尙意의 詩學으로 변화를 보였다. 意趣의 중시는 唐詩가 지향해 온 抒情 전통에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이후의 송대 시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되었다. 劉攽이 《中山詩話》에서 “詩는 意가 主이고 文詞는 그 다음이다. 혹은 뜻이 깊고 의리가 높으면 비록 文詞가 平易할지라도 자연 뛰어난 작품이 된다.”¹⁶⁾라고 말한 것도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따라서 ‘意’의 표현을 중시함과 더불어 ‘詩味論’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고 ‘깊은 뜻’의 ‘味’를 추구하게 되니, 그것은 시미론의 골자가 결국 ‘말은 다 하였으나 뜻은 여운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吳可는 《藏海詩話》에서 말하길, 요컨대 意趣의 표현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화려함으로 보충하면 가운데와 바깥이 모두 달콤하게 될 것이라 하여, ‘意’와 ‘味’의 관계를 바로 연결시켜 ‘意’를 강조하였다.¹⁷⁾ 唐詩와 宋詩의 차이를 흔히

14) 梁獻, <評書帖>: “晉人尙韻, 唐人尙法, 宋人尙意, 元明人尙態.”(白浩子, <蘇軾의 尙意美學的 書藝觀 研究>(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9쪽).

15) <盤車圖>: “畫意不畫形.”(《歐陽修全集》(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5) 권1, 居士集 1, 44쪽).

16) “詩以意爲主, 文詞次之, 或意深義高, 雖文詞平易, 自是奇作.”(《全編》 권1, 442쪽).

17) “凡裝點者好在外, 初讀之似好, 再三讀之則無味. 要當以意爲主, 輔之以華麗, 則中變皆甜也. 裝點者外腴而中枯故也, 或曰秀而不實.”(《全編》 권6, 5539쪽).

일반적으로 情과 意의 표현을 위주로 하는 차이로 이야기하는데,¹⁸⁾ 意의 표달을 중시하는 송대 詩學은 매요신과 구양수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점차 보편화되었다.

宋은 건국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영하였으며, 따라서 오랜 전통의 飲食文化 역시 성황을 이루었다. 지금 전하는 송대의 시인들의 시집을 보면, 시인들이 연회석상 등의 자리에서 음식을 맛본 경험과 생각을 시로 나타낸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飲食과 관련된 詩에 보이는 시인들의 음식에 관련된 농후한 관심 역시 시미론의 產生 및 성행과 어느 정도 직접 간접의 영향 관계가 있다.¹⁹⁾

IV. 송대 시미론의 전개

송대에는 시미에 관한 논의가 보편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된 견해를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몇 명 골라 그들의 시미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北宋

① 梅堯臣과 歐陽修的 ‘眞味’와 ‘古味’

歐陽修와 梅堯臣의 詩味論의 특색은 각기 ‘眞味’와 ‘古味’를 제시하면서 ‘古淡’과 결합시킨 데에 있다.²⁰⁾ “古淡한 가운데 眞味が 있고”(매요신) “古

18) 淸의 吳喬는 《圍爐詩話》에서 “唐詩主於達情，故於三百篇近，宋詩主於議論，故於三百篇遠.”이라 말했고, 현대의 연구자 繆鉞 같은 이 역시 “唐詩以韻勝，故渾雅，而貴醞藉空靈，宋詩以意勝，故精能，而貴深析透辟.”(<論宋詩>)이라고 평했다.

19) 張思齊, 《宋代詩學》(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0), 136쪽.

20) 歐陽修, <再和聖俞見答>시: “子言古淡有眞味，大羹豈須調以齏.”(《歐陽修全集》(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5) 권1, 居士集 1, 36쪽). <送楊關秀才>시: “世好競辛鹹，古味殊淡泊.”(《歐陽修全集》 권1, 居士集 1, 10쪽).

味는 매우 淡泊하다.”(구양수)는 審美 意識은 송대 시미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이전에도 劉勰의 味論이나, 鍾嶸의 ‘滋味’ 관련 논의, 司空圖의 ‘味外之旨’說 등에 이르기까지 ‘味’를 논한 사람은 없지 않으나, 일찍이 이렇게 ‘古淡’과 ‘味’를 결합시킨 사례는 없었다. 이들의 시미론은 당시 시단을 풍미하던 西崑體가 彫琢에만 힘쓰고 내용이 공허한 浮艷한 시풍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 폐단을 불식하여 시에 참맛[眞味]을 갖추고자 하며, 처방으로 ‘淡泊’한 ‘古味’를 제시하였다.

② 魏泰의 ‘餘味’

위태는 《臨漢隱居詩話》에서 시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는 맛을 담고 있어야 하며 그 맛은 오래가야 한다는 견해를 샘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였다.²¹⁾ 그는 餘味說을 제창하여, 詩라는 것은 어떤 일을 서술하면서 감정을 기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은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비해,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을 중시하니, 감흥이 마음에 모여들면 情이 말로 나타나게 되어 읽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게 되는데, 만약 쌓인 것이 폭발이라도 하듯 직접적으로 서술해버리면 더 이상 餘味란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²²⁾ 위태의 詩話에는 또 歐陽修 시의 有味 여부를 둘러싸고 王安石과 위태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²³⁾ 味の 美感은 상대성을 띠며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인 審美 체험이란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21) “凡爲詩，當使挹之而源不窮，咀之而味愈長。”(《全編》 권2, 1213쪽).

22) “詩者述事以寄情，事貴詳，情貴隱，及乎感會于心，則情見于詞，此所以入人深也。如將盛氣直述，更無餘味。”(《全編》 권2, 1211쪽).

23) “頃年嘗與王荊公評詩，予謂，‘…至如永叔之詩，才力敏邁，句亦清健，但恨其少餘味爾。’荊公曰，‘不然，如「行人仰頭飛鳥驚」之句，亦可謂有味矣。’然余至今思之，不見此句之佳，亦竟莫原荊公之意。信乎，所見之殊，不可強同也。”(《全編》 권2, 1213쪽).

③ 蘇軾의 ‘至味’

중국의 시미론은 소식에 이르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는司空圖의 ‘味外之味’의 주장을 극찬하면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겉은 마르면서도 안이 기름지고(外枯中膏)’ ‘담담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아름다운(似澹實美)’ ‘味’라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소식은 이런 예로陶淵明의 시를 평하면서 도연명의 시는 질박하면서도 실은 아름답고 말랐으면서도 실은 살이 쩌, 어느 시인보다도 뛰어나다고 하였다.²⁴⁾ 도연명이 송대에 이르러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시인들의 典範이 된 데에는 소식의 공로가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平淡은 北宋에 들어선 이후, 많은 시인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詩味와 연계되어 다루어졌다. 매요신이나 구양수도 그러하였는데, 소식도 이들과 비슷하지만 ‘澹泊’을 ‘지극한 맛[至味]’과 결부시키고, 平淡을 詩의 최고 審美 理想으로 삼았으며, ‘平淡’에 대하여 그 성격을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하여 絢爛의 極致 뒤에 이르는 平淡으로 본 것은 이전의 시인들과는 분명 다른 점이다.²⁵⁾

2. 南宋

① 張戒의 ‘意味’ ‘情味’

장계는 《歲寒堂詩話》에서 우수한 시가가 구비하는 조건으로 네 가지 요소, 즉 ‘意’와 ‘味’와 ‘韻’과 ‘氣’를 들었다. 이 중, ‘韻’과 ‘氣’는 배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장계는 作詩의 최종 목적을 ‘意’와 ‘味’를 나타내는 데에 두었다.²⁶⁾ 특히 그는 ‘味’의 표현을 시의 審美 本質로까지 그

24) <與子由書>: “淵明作詩不多, 然其詩質而實綺, 癯而實腴, 自曹劉鮑謝李杜諸人, 皆不及也.”(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권65, 2515쪽).

25) 周紫芝, 《竹坡詩話》: “東坡嘗有書與其姪云, ‘大凡爲文, 當使氣象崢嶸, 五色絢爛, 漸老漸熟, 乃造平淡.’”(《全編》 권3, 2829쪽).

26) “阮嗣宗詩, 專以意勝, 陶淵明詩, 專以味勝, 曹子建詩, 專以韻勝, 杜子美詩, 專以氣勝. 然意可學也, 味亦可學也, 若夫韻有高下, 氣有強弱, 則不可強矣.”

가치를 높였다.²⁷⁾ 장계의 詩味論 ‘意味說’의 특색은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장계 이전의 전통 시론은 詩言志說과 詩緣情說이 대표인데, 장계는 ‘意’와 ‘情’에 ‘味’자를 덧붙여 ‘意味’와 ‘情味’라는 말을 하였다.²⁸⁾ 이것은 그 이전에는 일찍이 없었던 표현으로, 시에서 ‘味’의 본질론(본체론)적인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詩言志說과 詩緣情說설을 거쳐 송대에 이르러 특히 시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 ‘以意論詩’이며, 鍾嶸 이후 司空圖를 거쳐, 宋에 이르러 評詩의 주요 표준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以味論詩’이다. 장계의 ‘의미설’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여 아우른 데에 특색이 있다. 둘째, 중국의 전통 詩論에서 주로 언급하는 ‘志’와 ‘情’, 그리고 ‘意’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장계는 주목하여 언어의 운용에 있어서 中的說을 제시했고,²⁹⁾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은 婉曲하고 뜻은 隱微한 含蓄적 표현을 강조하였다.³⁰⁾ 셋째, 장계의 意味說의 ‘意味’는 또 시가 평가에도 주요 기준으로 쓰였다. 장계는 도연명을 높이 追崇하여 도연명 시의 뛰어난 점은 바로 ‘味에 있음을 지적하였다.’³¹⁾ 넷째, 장계는 ‘以意論詩’, 意味說에 입각하여 당시의 시단의 불량한 경향을 비판하였는데, 이것은 장계의 시론 意味說과 詩史의 관련 선상에 서의 의의로 볼 수 있다.³²⁾

(《全編》 권3, 3235쪽).

27) “大抵句中若無意味，譬之山無煙雲，春無草樹，豈復可觀。”(《全編》 권3, 3235쪽).

28) 이를테면 “粗足意味，便稱佳句.”、“詩人之工，特在一時情味.”(각기 《全編》 권3, 3235쪽과 3238쪽에 보임).

29) “蕭蕭馬鳴，悠悠旆旌，以‘蕭蕭’‘悠悠’字，而出師整暇之情狀，宛在目前。此語非惟創始之爲難，乃中的之爲工也。”(《全編》 권3, 3238쪽).

30) “惟杜子美則不然，<哀江頭>云…其詞婉而雅，其意微而有禮，其可謂得詩人之旨者。”(《全編》 권3, 3241-3242쪽).

31) “即淵明之詩，妙在有味耳。”(《全編》 권3, 3236쪽).

32) “蘇、黃用事押韻之工，至矣盡矣，究其實，詩人中一害，後生只知用事押韻之爲詩，不知詠物之爲工，言志之爲本也，風雅自此掃地矣。”(《全編》 권3, 3237쪽). “子瞻以議論作詩，魯直又專以補綴奇字，學者未得其所長，而先得其所短，詩人之意掃地矣。”(《全編》 권3, 3240쪽).

② 楊萬里的 ‘風味’

양만리는 辨體論의 입장에서 ‘文’과 ‘詩’를 분명히 구분하고, 詩味를 시의 본질적 특색 중의 하나로 파악하여, 시는 이미 다 끝나도 맛이 바야흐로 悠長하여야 비로소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³⁾ 양만리는 또 시미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주목하여 시의 結尾의 처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평소에 뛰어난 작가의 시를 두루 읽어 그 맛을 체득할 것을 주장했다. 양만리는 ‘詩味’를 시인과 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 ‘시구가 雅淡하고 맛이 深長한 시인’으로 陶淵明과 柳宗元을 들었다.³⁴⁾ 양만리는 또 ‘시미’를 특정 작가 혹은 특정 시파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고유한 藝術的 感染力과 연계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를테면 江西詩派라는 이름의 命名은 공통의 地緣이라는 걸모습[形]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파의 시인들의 시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風味’, 고유한 특징인 맛[味] 때문이라는 ‘以味不以形’의 견해를 내세우며 ‘風味’를 버리고 ‘形似’만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³⁵⁾ 바로 이 점에 기초하여, 양만리는 晚唐詩의 ‘異味’를 제기하면서, ‘《詩經》三百篇의 遺味’를 뒤이어 晚唐諸子를 거쳐 王安石의 시에 이르는 ‘味’의 系譜를 보여준 점도 양만리 시미론의 특색 중의 하나이다.³⁶⁾ 더군더나 이 견해는 만당시를 극력 비판하는 江西詩派 末流가 학식을 바탕으로 典故를 多用하는 시풍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에서

33) 《誠齋詩話》: “詩已盡而味方永, 乃善之善也.”(《全編》 권6, 5933쪽).

34) 《誠齋詩話》: “五言古詩, 句雅淡而味深長者, 陶淵明、柳子厚也.”(《全編》 권6, 5938쪽).

35) <江西宗派詩序>: “江西宗派詩者, 詩江西也, 人非皆江西也. 人非皆江西, 而詩曰江西者何? 繫之也. 繫之者何? 以味不以形也. 東坡云, ‘江瑤柱似荔子’, 又云, ‘杜詩似太史公書’, 不惟當時聞者嘸然, 陽應曰諾而已, 今猶嘸然也. 非嘸然者之罪也, 捨風味而論形似, 故應嘸然也, 形焉而已矣.”(《誠齋集》 권79)(《全編》 권6, 5970쪽).

36) <讀立澤叢書>: “晚唐異味同誰賞, 近日詩人輕晚唐.”(《誠齋集》 권27)(《全編》 권6, 5960쪽). <頤菴詩稿序>: “三百篇之後, 此味絕矣, 惟晚唐諸子差近之.”(《誠齋集》 권83)(《全編》 권6, 5983쪽). <頤菴詩稿序>: “三百篇之遺味黯然而猶存也. 近世惟半山老人得之.”(《誠齋集》 권83)(《全編》 권6, 5983쪽).

나온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③ 기타

이상에서 중점적으로 논한 사람 외에도 ‘味’를 언급한 사람은 적지 않다. 姜夔는 《白石道人詩說》에서 “詩語는 함축을 귀하게 여긴다.” “시구 중에 남아도는 맛[餘味]이 있고 한 편 가운데 남아도는 뜻이 있어야 가장 훌륭한 작품이다.”고 하였으며,³⁷⁾ 시인들은 각자 나름대로 一家의 ‘風味’를 지니고 있어야 됨을 강조하였다.³⁸⁾

嚴羽도 《滄浪詩話》에서 두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味’를 언급하였다. <詩法>편에서 作詩에서 꺼려야 될 여섯 가지 중의 하나로 “맛은 짧은 것을 꺼린다.”³⁹⁾를 말하였고, <詩評>편에서 “<離騷>를 오래 읽어야만 비로소 그 참맛[眞味]을 알 수 있다.”⁴⁰⁾고 말해, 전자는 창작의 경우, 후자는 감상의 측면에서 ‘味’를 논하였다. 엄우의 興趣說은 그 자체가 바로 시미론이라 할 수는 없지만, 시미론과 관련이 없지 않다.

V. 송대 시미론의 특색

詩味에 관한 諸家の 주장을 종합하고 그 중에서 비교적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를 추출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송대 시미론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1. 詩味の 성격과 특징

송대의 詩味論은 한 두 사람에게 의해 제기된 데에 그치지 않고 시를 짓

37) “語貴含蓄.” “句中有餘味, 篇中有餘意, 善之善者也.”(《全編》 권9, 7549쪽).

38) “一家之語, 自有一家之風味.”(《全編》 권9, 7549쪽).

39) “味忌短.”(《全編》 권9, 8725쪽).

40) “讀騷之久, 方識眞味.”(《全編》 권9, 8729쪽).

고 논함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특색을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송대에 이르러 시인들은 점차 이 ‘詩味’가 시에 있어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만이 아니라, 이것을 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로 보는 본질론적인 견해가 점차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북송의 魏泰는 詩에는 餘味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시미의 審美 本質로서의 특색을 지적하였는데, 그의 논의는 詩와 文을 비교한 데서 나온 文體論적인 입장이다. 즉 詩와 文의 체제상의 차이는 표현에 있어서도 특색을 달리하여 文이 비교적 직접적인 서술을 중시한다면 詩는 상대적으로 은근함과 함축적인 표현을 더 중시한다고 보았다. 또 남송의 양만리 역시 ‘시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시는 詩語와 詩意를 버려도 존재하며’ ‘시는 味 가운데에 존재한다.’고 보았다.⁴¹⁾ 이것은 ‘詩味’를 시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보고 중시하는 견해이다.

‘味’의 종류는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신맛·쓴맛·매운맛·단맛·짠맛의 ‘五味’를 드는데, 그러면 송대의 시인들이 생각하는 ‘시미’는 어떤 ‘味’인가? ‘詩味’를 논하는 송대의 시인들은 ‘橄欖’이나 ‘씀바귀’를 가지고 詩味에 비유하길 좋아하였는데 그것은 ‘橄欖’이나 ‘씀바귀의 맛이 처음에는 쓰고 땀으나 먹을수록 단맛이 나기 때문이다.⁴²⁾ 송대의 시인들이 중시하는 ‘味’도 바로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달지 않고 쓴 맛이지만 먹을수록 더욱 단맛을 느끼고 오래 씹을수록 더욱 悠長한 맛이다. 이것은 송대 특유의 審美觀이다.

송대에는 ‘味’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특색을 細分하여,

41) <頤菴詩稿序>: “夫詩, 何爲者也? 尙其詞而已矣. 曰: 善詩者去詞. 然則尙其意而已矣. 曰: 善詩者去意. 然則去詞去意, 則詩安在乎? 曰: 去詞去意, 而詩有在矣.”(《誠齋集》 권83)(《全編》 권6, 5983쪽).

42) 《臨漢隱居詩話》: “王禹偁<橄欖>詩云, ‘南方多果實, 橄欖稱珍奇. 北人將就酒, 食之先嚙眉. 皮核苦且澀, 歷口復棄遺. 良久有回味, 始覺甘如飴.’”(《全編》 권2, 1218쪽). 楊萬里, <頤菴詩稿序>: “至於茶也, 人病其苦也, 然苦未既, 而不勝其甘. 詩亦如是而已矣.”(《誠齋集》 권83)(《全編》 권6, 5983쪽).

‘味’와 관련하여 이전에 사용되었던 말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표현들도 나타났다. 송대에 사용된 ‘시미’ 관련 용어와 이 말을 사용한 사람으로는 ‘眞味’(梅堯臣, 朱熹, 嚴羽), ‘古味’(歐陽修), ‘至味’(蘇軾), ‘餘味’(魏泰, 邵雍, 黃徹, 朱熹, 范曄文), ‘意味’(黃庭堅, 張戒, 陳知柔, 范曄文, 包恢), ‘氣味’(蘇軾, 趙令時, 楊時, 呂本中, 黃徹), ‘風味’(黃庭堅, 楊萬里, 姜夔), ‘滋味’(張拭, 葛立方, 魏慶之), ‘異味’(楊萬里), ‘淡泊之味’(葛立方), ‘遺味’(葛立方), ‘情味’(張戒), ‘韻味’(張戒), ‘野味’(陳知柔) 등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그리고 양만리는 시미를 한 편의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시미’만을 지칭하지 않고, 이것을 좀 더 여러 가지로 세분하여 어느 한 시기의 시의 특색(예컨대 특히 송대에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晚唐詩에 대해 ‘異味’를 발견해내고 긍정적으로 평가),⁴³⁾ 어느 한 詩派의 시의 특색(이를테면 江西詩派의 특색이 ‘形’이 아닌 ‘味’(‘風味’)에 있음을 지적),⁴⁴⁾ 어느 한 시인의 시의 특색(이를테면 왕안석의 시가 晚唐詩의 異味를 계승하였다고 평가) 등으로 나누었으며, 중국의 고전시가는 이미 《詩經》서부터 온유둔후한 美刺정신에 의한 ‘시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이후 이러한 시미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고 중국의 詩史를 시미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하였다.⁴⁵⁾

2. 시미의 창작

시미를 중시하는 송대의 시인들은 실제 창작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43) <讀立澤叢書>: “晚唐異味同誰賞, 近日詩人輕晚唐.”(《誠齋集》 권27)(《全編》 권6, 5960쪽). <頤菴詩稿序>: “三百篇之後, 此味絕矣, 惟晚唐諸子差近之.”(《誠齋集》 권83)(《全編》 권6, 5983쪽).

44) <江西宗派詩序>: “江西宗派詩者, 詩江西也, 人非江西也. 人非皆江西而詩曰江西者何? 繫之也. 繫之者何? 以味不以形也.”(《誠齋集》 권79)(《全編》 권6, 5970쪽).

45) <頤菴詩稿序>: “三百篇之遺味黯然猶存也, 近世惟半山老人得之.”(《誠齋集》 권83)(《全編》 권6, 5983쪽).

시에 ‘시미’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魏泰와 張戒, 姜夔 등 다수의 사람들은 말은 간단하나 뜻은 깊은 含蓄的 표현을 제시하였다. 함축의 중시는 많은 詩論家와 시인들이 추구해온 송대 시학의 주요 내용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梅堯臣은 창작의 要諦로 “묘사하기 어려운 경치를 형상화하여 눈앞에 있는 것 같이 하고, 다하지 않은 뜻을 머금어 말밖에 나타내야 한다.”⁴⁶⁾고 하였는데, 詩味를 중시하는 그로서 함축적 표현을 중시하는 것을 당연하다 하겠다. 위태도 시에서의 ‘餘味’를 위해 함축적인 표현을 강조하였고, 張戒 역시 詩語는 婉曲하고 뜻은 은근하여 너무 급박하지도 않고 다 드러내지도 않는 표현을 높이 치며⁴⁷⁾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어 함축된 뜻이 없는 것을 기피하였다. 그리하여 杜牧이나 白居易, 元稹, 張籍의 시가 장계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말의 뜻이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 함축적이지 못한 데에 있다.⁴⁸⁾

장계는 또 어떤 한 시인의 뛰어난 단지 어떤 한 때에 느끼는 情味를 나타내는 데에 있는 것이지 法式을 미리 세워놓고 거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며 詩法의 속박을 반대하는 것이다.⁴⁹⁾ 朱熹 역시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중시하여, 劉叔通의 시를 평하여 “叔通의 시는 조탁하고 꾸미는 교묘함을 부리지 않지만, 그 평이하고 여유롭고 힘을 들이지 않는 곳에 바로 남아도는 맛[餘味]이 있다.”⁵⁰⁾고 말했다. 그가 도연명의 시를 높이 치는 것도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점에 있

46) 歐陽修, 《六一詩話》: “聖俞嘗語餘曰, …狀難寫之景, 如在目前, 含不盡之意, 見於言外.”(《全編》 권1, 214쪽).

47) 《歲寒堂詩話》: “國風云, ‘愛而不見, 搔首踟躕.’、‘瞻望弗及, 佇立以泣.’ 其詞婉, 其意微, 不迫不露, 此其所以可貴也.”(《全編》 권3, 3238쪽).

48) 《歲寒堂詩話》: “杜牧之云, ‘多情卻是總無情, 惟覺尊前笑不成.’ 意非不佳, 然其詞意淺露, 略無餘蘊. 元白張籍, 其病正在此, 只知道得人心事, 而不知道盡則又淺露也.”(《全編》 권3, 3238-3239쪽).

49) “詩人之工, 特在一時情味, 固不可預設法式也.”(《全編》 권3, 3238쪽).

50) 《晦庵先生朱文公集》 권83, <跋劉叔通詩卷>: “叔通之詩, 不爲雕刻纂組之工, 而其平易從容不費力處, 乃有餘味.”(四部叢刊本(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491쪽).

다.⁵¹⁾ 이러한 詩評이 詩의 수사 표현과 관련하여 발언한 것이라면, 理學家로서의 주희는 동시에 또 평소의 心性 수양에 의해 平淡한 마음으로 시를 지으면 ‘참된 맛[眞味]’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⁵²⁾ 같은 理學家인 張栻도 도덕 수양과 滋味를 연계시켰다. 그는 시를 ‘詩人の 詩’와 ‘學者의 詩’ 두 가지로 나눈 다음, ‘詩人の 詩’는 깊이 음미할 만한 것이 없는 반면, 도덕 함양 공부를 하는 ‘學者의 詩’는 겉으로는 질박한 듯 보이지만 무한한 맛[滋味]을 담고 있어, 오래 젖어들면 들수록 더욱 深長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⁵³⁾ 앞의 朱熹나 張栻의 이러한 말들은 모두 理學家 詩論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점들이다.

송대에는 詩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는데, 몇몇 사람의 경우 시미론의 경우도 시법과 연계하여 논의를 펼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楊萬리는 시의 結尾에서 旨趣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문제를 作法과 결부시켜 논하였다. 이것은 그가 篇法에 대해 논하면서, “《金針法》에서 말하기를 ‘여덟 구의 律詩는 落句가 높은 산에서 돌을 굴리면 한번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옳은 말이라 여기지 않는다. 시는 이미 끝나도 맛이 바야흐로 길어야 비로소 가장 훌륭한 것이다.”⁵⁴⁾ 라고 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양만리는 蘇軾의 <汲江煎茶> 詩의 마지막 두 구인 “詩興 일으키기엔 석 잔 茶만으로 쉽지 않고, 山城에 누워 길고 짧은 북소리 듣네.”에 대하여 “山城의 북소리가 일정하지 않으니, ‘長短’

51) 黎靖德 編, 《朱子語類》(長沙: 嶽麓書社, 1997) 권140: “陶淵明詩平淡出於自然. 後人學他平淡, 便相去遠矣.”(3001쪽).

52) 黎靖德 編, 《朱子語類》 권140: “作詩間以數句適懷亦不妨. 但不用多作, 蓋便是陷溺爾. 當其不應事時, 平淡自攝, 豈不勝如思量詩句. 至其眞味發溢, 又卻與尋常好吟者不同.”(3009쪽).

53) 盛如梓, 《庶齋老學叢談》: “有以詩集呈南軒先生. 先生曰, ‘詩人之詩也, 可惜不禁咀嚼.’ 或問其故? 曰, ‘非學者之詩, 學者詩讀著似質, 卻有無限滋味, 涵泳愈久, 愈覺深長.’”(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臺北: 盤庚出版社, 1978) 권下, 32쪽에서 재인용).

54) 《誠齋詩話》: “《金針法》云, ‘八句律詩, 落句要如高山轉石, 一去無回.’ 予以爲不然. 詩已盡而味方永, 乃善之善也.”(《全編》 권6, 5933쪽).

두 자에 무궁한 맛이 담겨 있다.”라고 평했다.⁵⁵⁾ 이 시는 北宋 哲宗 元符 3년(1100), 소식이 儋州(지금의 海南島 儋縣)로 폼적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작자는 봄날 달밤에 강가에서 물을 길어와 차를 달여 마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끝에 가서는 멀리 폼적된 적막한 심정을 나타내었다. 옛날엔 밤을 五更으로 나누어 更마다 시간을 알리기 위하여 북을 쳤는데, 북을 치는 횟수가 적은 것은 ‘短更’, 횟수가 많은 것은 ‘長更’이라 불렀다. 양만리는 끝 귀에서 작자가 북소리를 듣고 그 횟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세어가며 시간을 짐작하면서 밤을 보내는 적막하고 무묘한 심정이 ‘長短’이라는 두 글자를 통하여 잘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詩味の 문제를 字法과 연계시켜 분석한 것이다. 姜夔 또한 ‘餘味’를 ‘함축’와 결부시키고,⁵⁶⁾ 시의 結尾 부분에서의 辭와 意의 운용 관계를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말은 이미 다 마쳤으나 뜻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辭盡意不盡]와 말을 끝까지 다 하지 않았으며 깊은 뜻 또한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채 綿綿히 이어지는 경우[辭意俱不盡]를 든 것은 바로 餘韻이 있는 함축적인 표현을 높이 친 것이니, ‘함축’에 대한 주장을 실제 창작에서 구체화시킨 것이다.⁵⁷⁾ 이와 같이 ‘味’의 표현을 구체적인 창작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바로 그 이전의 諸家와 구별되는 특색이다.

55) 《誠齋詩話》: “東坡<煎茶>詩云, …‘枯腸未易禁三椀, 臥聽山城長短更.’ 山城更漏無定, ‘長短’二字, 有無窮之味.”(《全編》 권6, 5936쪽).

56) 《白石道人詩說》: “語貴含蓄. 東坡雲, ‘言有盡而意無窮者, 天下之至言也.’ 山谷尤謹於此. 清廟之瑟, 一唱三嘆, 遠矣哉. 後之學詩者, 可不務乎? 若句中無餘字, 篇中無長語, 非善之善者也, 句中有餘味, 篇中有餘意, 善之善者也.”(《全編》 권7, 7549쪽).

57) 《白石道人詩說》: “所謂詞意俱盡者, 急流中截後語, 非謂詞窮理盡者也. 所謂意盡詞不盡者, 意盡於未當盡處, 則詞可以不盡矣, 非以長語益之者也. 至如詞盡意不盡者, 非遺意也, 辭中已彷彿可見矣. 辭意俱不盡者, 不盡之中, 固已深盡之矣.”(《全編》 권7, 7550쪽).

3. 시미의 감상

시미론의 내용은 시가 창작 뿐 아니라 시가 평가를 비롯하여 감상과 관련된 것도 있다. 즉 송대의 시인들은 어떻게 시미를 감상하고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주목하였다. ‘熟味’, ‘玩味’ ‘咀嚼意味’ 등의 說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논의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밀하게 읽어 맛을 얻는 방법이다. 朱熹는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맛[滋味]을 취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몰입하여 곰곰이 음미할 것을 말해, “다만 모름지기 깊이 몰입하여 읊조리면서 뜻과 이치를 음미하고 맛을 곰곰이 되씹어야 비로소 유익함이 있다. 만약 대강대강 《詩經》 중의 한 권을 읽고 지나간다면 단지 2, 3일 만에 끝마칠 수 있다. 그러나 맛[滋味]은 얻지 못할 것이다.”⁵⁸⁾고 하였다. 양만리는 또한 前人의 뛰어난 시를 학습함을 통하여 “그 意味를 깊이 얻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테면 杜甫의 七言古詩 <丹青引>, <曹將軍畫馬>, <奉先縣劉少府山水障歌> 등은 모두 雄偉宏放하다고 평하고, 시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백과 두보, 소식, 황정건의 시에서 이런 작품을 찾아 誦讀하고 심취하여 깊이 그 맛을 얻으면 시를 지음에 자연히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⁵⁹⁾ 둘째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오래 읽음을 통해 그 맛을 얻는 방법이니⁶⁰⁾ 앞에서 張栻이 말했듯이 ‘오래 젖어들면 들수록 더욱 深長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작품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그 맛을 얻는 방법이다. 陸游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여 열 번 읽고 백 번 읽어야 비로소 그 妙함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⁶¹⁾ 송대의 시인들은 시를 읽을 때에는 모름지

58) 黎靖德 編, 《朱子語類》 권80: “但須是沈潛諷誦, 玩味義理, 咀嚼滋味, 方有所益. 若只草草看過一部詩, 只三兩日可了. 但不得滋味.”(1874쪽).

59) 《誠齋詩話》: “七言長韻古詩, 如杜少陵<丹青引>、<曹將軍畫馬>、<奉先縣劉少府山水障歌>等篇, 皆雄偉宏放, 不可捕捉. 學詩者於李杜蘇黃詩中, 求此等類, 誦讀沈酣, 深得其意味, 則落筆自絕矣.”(《全編》 권6, 5934-5935쪽).

60) 魏泰, 《臨漢隱居詩話》: “咀之而味愈長.”(《全編》 권2, 1213쪽). 范晞文, 《對牀夜語》: “咀嚼既久, 乃得其意.”(《全編》 권9, 9300쪽).

기 곱곱이 음미하며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어 깊은 맛을 느껴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 하였다.

4. 시미의 審美的 理想과 대표 시인

詩味の 이상적인 審美 형태로 송대의 시인들은 平淡 풍격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이전의 六朝와 唐代에는 보기 드문 견해이다. 매요신은 “시를 지움에 古금이 없이 오로지 平淡에 이르기가 어렵다.”⁶²⁾고 하여 평담을 중시하는 생각을 보였다. 蘇軾은 다시 여기에 좀 더 보충을 가하여 “무릇 글을 지움에 마땅히 氣象이 빼어나고 五色이 絢爛하던 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원숙해져서 마침내 平淡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⁶³⁾는 점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이 평담이 그저 단순한 평담이 아니라 화려함을 거친 평담임을 분명히 하여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뜻을 밝혔다. 이를테면 吳可는 “무릇 문장은 먼저 화려하고 뒤에 평담해진다.”⁶⁴⁾고 하였고, 葛立方은 “대저 평담에 이르러자 하면 마땅히 화려한 가운데에서 와야 하니, 그 화려함을 떨쳐버린 후에야 평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⁶⁵⁾고 한 것이 그 예의 하나이다.

소식은 이어서 <評韓柳詩>에서 枯澹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겉은 메마르면서도 속은 기름지고, 澹泊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며 이러한 시인으로 도연명과 유종원을 들었다.⁶⁶⁾ 그

61) “有一讀再讀至十百讀, 乃見其妙者.”(陸游, 《渭南文集》 권39 <何君墓表>)(《全編》 권6, 5777쪽).

62) “作詩無古今, 唯造平淡難.”(《全編》 권1, 153쪽).

63) 周紫芝, 《竹坡詩話》: “東坡嘗有書與其姪云, ‘大凡爲文, 當使氣象崢嶸, 五色絢爛, 漸老漸熟, 乃造平淡.’”(《全編》 권3, 2829쪽).

64) 《藏海詩話》: “凡文章先華麗而後平淡.”(《全編》 권6, 5539쪽).

65) 《韻語陽秋》: “大抵欲造平淡, 當自組麗中來, 落其華芬, 然後可造平淡之境.”(《全編》 권8, 8196쪽).

66) “所貴乎枯澹者, 謂其外枯而中膏, 似澹而實美, 淵明、子厚之流是也, 若中邊皆枯澹, 亦何足道.”(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권67, 2109-2110쪽).

리고 <書黃子思詩集後>에서는 지극한 맛[至味]과 澹泊한 표현을 결부시켜, “유독 韋應物과 柳宗元만은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간결하고 옛스러운 가운데 나타내고 澹泊한 가운데에 지극한 맛[至味]을 깃들여, 다른 사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었다.”⁶⁷⁾고 하였다. <與子由書>에서는 이러한 특색을 갖춘 시인으로 특히 도연명을 높이 치며, “도연명은 시를 지은 것이 많지 않으나, 그의 시는 질박하면서도 실은 아름답고, 말랐으면서도 실은 살찌 있다. 曹植, 劉楨, 鮑照, 謝靈運, 李白, 杜甫 등의 여러 시인들이 모두 그에 미치지 못한다.”⁶⁸⁾고 평하였다. 이 이후로 송대의 시인들은 평담 풍격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陶淵明의 시를 추앙하였으며, 六朝 시대에는 비교적 중시를 받지 못하던 도연명이 송대에 이르러 비로소 새롭게 높이 평가받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도연명 시의 ‘평담’과 ‘至味’라는 두 가지 특색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장계는 阮籍과 陶淵明, 曹植, 杜甫 등 네 사람을 들고 그 중에서 특히 ‘味’에 뛰어난 사람으로 바로 도연명을 꼽았다.⁶⁹⁾ 양만리는 五言古詩에서 詩句가 雅淡하고 맛이 深長한 시인으로 陶淵明과 柳宗元을 들었는데⁷⁰⁾, ‘시구의 雅淡’과 ‘맛의 深長’을 결합하여 도연명과 유중원을 든 것은 바로 소식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며, 송대의 여러 시인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5. 시미론의 시대성

‘以味論詩’의 주장은 시의 審美 특질을 논하는 일반론적인 의미 외에도

67) “獨韋應物、柳宗元發纖穠於簡古，寄至味於澹泊，非餘子所及也。”(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권67, 2124쪽).

68) “淵明作詩不多，然其詩質而實綺，澹而實腴，自曹劉鮑謝李杜諸人，皆不及也。”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권65, 2515쪽).

69) 《歲寒堂詩話》 권上: “阮嗣宗詩，專以意勝，陶淵明詩，專以味勝，曹子建詩，
專以韻勝，杜子美詩，專以氣勝。”(《全編》 권3, 3235쪽).

70) 《誠齋詩話》: “五言古詩，句雅淡而味深長者，陶淵明、柳子厚也。如少陵<羌
村>、後山<送內>，皆是一唱三嘆之聲。”(《全編》 권6, 5938쪽).

때로는 시단의 일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제기되기도 하였다. 매요신과 구양수는 각기 ‘眞味’와 ‘古味’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이들이 浮艷하며 對句와 彫琢만을 일삼는 西崑體의 詩風을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張戒는 江西詩派의 末流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에서 ‘意味’를 주장하였다. 그는 ‘以意論詩’, 意味說에 입각하여 당시의 시단이 시가의 抒情과 言志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用事, 押韻, 奇異함만 추구하는 경향을 비판하였다.⁷¹⁾ 양만리 역시 江西詩派의 末流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에서 晚唐詩의 ‘異味’를 높이 제기하였다. 양만리는 만당시의 ‘異味’로 강서시파 말류가 “以學問爲詩”、“以文爲詩”、“以才學爲詩”하는 폐단을 바로잡고 시에서 표현이 婉曲하고 含蓄적인 《詩經》 삼백편의 遺味’를 계승함으로써 전통 시학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는 만당시의 가치를 당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함에 대해 개탄하면서 강서시파가 만당시를 경시하는 풍조를 질책하였다.⁷²⁾

이들의 詩味論은 각기 당시 시단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생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VI. 결 어

송대에는 詩味論이 詩學의 주요 개념이자 명제가 되었다. 이전보다 많은 시인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졌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대체로

71) “蘇、黃用事押韻之工，至矣盡矣，究其實，詩人中一害，後生只知用事押韻之爲詩，不知詠物之爲工，言志之爲本也，風雅自此掃地矣。”(《全編》 권3, 3237쪽).
“子瞻以議論作詩，魯直又專以補綴奇字，學者未得其所長，而先得其所短，詩人之意掃地矣。”(《全編》 권3, 3240쪽).

72) <讀笠澤叢書>: “晚唐異味同誰賞，近日詩人輕晚唐.”(《誠齋集》 권27)(《全編》 권6, 5960쪽).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 시미의 성격과 특징, 둘째, 시미의 창작, 셋째, 시미의 감상, 넷째, 시미의 심미적 이상과 대표 시인, 그리고 다섯째, 시미론의 시대성에 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을 행하였다. 송대의 시미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 비해 더욱 보편화되고, 더욱 세밀해지고, 더욱 전면화되었으며, 더욱 체계적이 되었다.

송대의 시미론은 위로는 六朝와 唐代를 계승하면서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元代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송대의 시미론에서 쓰였던 ‘味’ 관련 용어들이 원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사용되었으며, 이론에 있어서도 송대를 계승하였다. 揭傒斯는 《詩法正宗》에서 진정으로 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힘써야 하는 일을 다섯 가지 들었는데 네 번째가 바로 ‘詩味’이며, 도연명과 왕유, 위응물, 유종원 등의 시를 배울 때는 平淡한 가운데서 ‘眞味’를 찾을 줄 알아야 됨을 강조하였다.⁷³⁾ 范梈은 《木天禁語》에서 五言短篇古詩의 작법을 논하면서 ‘餘味’를 강조했다.⁷⁴⁾ 또 《詩法家數》는含蓄된 표현을 중시하고 作法의 측면에서 辭와 意의 다양한 관계에 따라 ‘味’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논한 姜夔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⁷⁵⁾ 또 明代에는 楊慎이 시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글 뜻을 음미하여 ‘眞味’를 맛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⁷⁶⁾ 後七子の 謝榛과 王世貞은 詩評에서 ‘餘味’나 ‘意味’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다.⁷⁷⁾ 清代의

73) “四曰詩味. …今人作詩, …若學陶、王、韋、柳等詩, 則當於平淡中求真味.”(張健編著, 《元代詩法校考》(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321쪽에서 재인용).

74) “辭簡意味長, 言語不可明白說盡, 含糊則有餘味.”(張健編著, 《元代詩法校考》, 160쪽에서 재인용).

75) ‘語貴含蓄’條와 辭와 意의 네 가지 표현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 보이며 張健編著의 《元代詩法校考》에서는 35쪽에 보임.

76) 《升菴詩話》 권11: “蓋頤中有物, 乃可言咀嚼而出眞味.” 丁福保輯, 《歷代詩話續編》(北京: 中華書局, 2001), 861쪽에서 재인용.

77) 謝榛, 《升菴詩話》 권2: “孟遲曰, ‘藤蕪亦是王孫草, 莫送春香入客衣.’ 此作點化而有餘味.” 王世貞 《藝苑卮言》 권4: “李義山琴瑟中二聯是麗語, 作適怨清和解, 甚通. 然不解則涉無謂, 既解則意味都盡.” 陳應鸞 《詩味論》 11-12쪽 참고. 각기 丁福保輯, 《歷代詩話續編》 1159쪽과 1016쪽에 보임.

劉熙載는 ‘平淡有味’의 관점에서 시를 논했다.⁷⁸⁾ 宋代의 葛立方이 平淡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평담에 이르고자 하면 마땅히 화려한 가운데에서 와야 하니 그 화려함이 떨어진 다음에 평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 말⁷⁹⁾은 清代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⁸⁰⁾

전체 시미론의 역사에서 볼 때, 송대는 시미론의 발전기에 속하는데, 문학 내적으로는 이전의 시미론을 계승하고, 문학 외적으로는 송대의 문화, 학술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생겨나, 시미론 자체에서 볼 적에, 이전과 다른 나름대로의 새로운 모습과 성취를 보여주었다.

< 參考文獻 >

(1) 論著類

- 何文煥 輯, 《歷代詩話》(北京: 中華書局), 2001.
 丁福保 輯, 《歷代詩話續編》(北京: 中華書局), 2001.
 毛子水 註譯, 《論語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陳鼓應 註譯, 《老子今註今譯》(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8.
 陳宏天 等 主編, 《昭明文選譯注》(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8.
 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吳文治 主編, 《宋詩話全編》(南京: 鳳凰出版社), 2006.
 歐陽修 撰, 《歐陽修全集》(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5.

78) “詩能於易處見工, 便覺親切有味.”(《藝概·詩概》(臺北: 廣文書局, 1980), 12쪽).

79) 《韻語陽秋》 권1: “大抵欲造平淡, 當自組麗中來, 落其華芬, 然後可造平淡之境.”(《宋詩話全編》 권8, 8196쪽).

80) 漁洋夫子 口述, 何世瑾 述, 《然鐙記聞》: “爲詩先從風致入手, 久之要造於平淡.”(丁福保 編, 《清詩話》(臺北: 西南書局, 1979), 101쪽에서 재인용). 朱庭珍, 《筱園詩話》 권1: “高渾古淡, 妙合自然, 所謂絢爛之極, 歸於平淡是也.”(郭紹虞 編選, 《清詩話續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2341쪽에서 재인용).

-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北京: 中華書局), 2004.
- 朱 熹 撰, 《晦庵先生朱文公集》(四部叢刊本,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 黎靖德 編, 《朱子語類》(長沙: 嶽麓書社), 1997.
- 丁福保 編, 《清詩話》(臺北: 西南書局), 1979.
- 郭紹虞 編選, 富壽蓀 校點, 《清詩話續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劉熙載, 《藝概》(臺北: 廣文書局), 1980.
-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臺北: 盤庚出版社), 1978.
- 蕭華榮, 《中國詩學思想史》(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 張 健, 《中國文學批評論集》(臺北: 天華出版社), 1979.
- 張思齊, 《宋代詩學》(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0.
- 郭預衡 主編, 《中國古代文學史長編(宋遼金卷)》(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6.
- 黃寶華·文師華, 《中國詩學史(宋金元卷)》(廈門: 鷺江出版社), 2002.
- 張健 編著, 《元代詩法校考》(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 陳應鸞, 《詩味論》(成都: 巴蜀書社), 1990.
- 송용준·오테석·이치수, 《宋詩史》(서울: 亦樂), 2004.

(2) 論文類

- 胡建次, <中國古代詩味論的發展及其特徵>, 《阜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2007年 第4期.
- 鄧新華, <“詩味”說的形成和發展>, 《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04年 第3期.
- 黎德銳, <以‘味’辨詩與以‘意’論詩>, 《梧州學院學報》2007年 第17卷 第2期.
- 馬悅寧, <論詩味理論的源起與發展>, 《蘭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9年 第2期.
- 李春喜, <《文心雕龍》“味”論探析>, 《文藝理論與批評》2007年 第5期.
- 李致洙, <楊萬里 《誠齋詩話》의 詩論>, 《中國學論叢》第19輯, 2005.
- 李致洙, <魏泰 《臨漢隱居詩話》의 詩論과 北宋 詩學의 趨向>, 《中國語

文論叢> 第40輯, 2009.

白浩子, <蘇軾의 尙意美學의 書藝觀 研究>(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中文提要>

在古代中國,很早就發達飲食文化,在這基礎上逐漸形成中國的特色非常濃厚的詩學理論,就是‘詩味論’,從六朝到清代一直盛行不衰。其歷史大體上可分為自先秦至晉宋為萌芽期,自齊梁至唐代為形成期,本文要探討的宋代即為發展期。至宋代,詩味論成為詩學的主要概念及命題。與以前比較,更多的詩人對此關心,內容更豐富更多彩,宋代詩人所關心的大抵可分為以下幾點,如(1)詩味的性格與特徵,(2)詩味的創作,(3)詩味的品賞,(4)詩味的審美理想與典範,(5)詩味論的時代性。宋代詩人重視詩味,視為詩歌的審美特質。宋代詩人更細分‘味’,出現比以前更豐富更多樣的有關‘味’的名稱。對於詩味之理想風格,宋代詩人就提起‘平淡’,將陶淵明推崇為理想之詩人。對於詩味之創作,宋代詩人大都重視‘含蓄’‘自然’等,還把詩味論落實到具體的詩法之中。對於詩味的品賞,主張深味、久味、反復玩味等。在宋代,‘以味論詩’的主張,有時是針對詩壇上存在的某種弊端而提起的。如上面所述,宋代的詩味論呈現出與以前相比不同的新的相貌與成就。有關詩味之論議,與前人相比,更加普遍化,更加細密化,更加全面化,更加體系化。從全體詩味論的歷史上言,宋代的詩味論承前啓後,繼承六朝與唐代,給與後代以影響。尤其對元代給以直接影響,明代與清代也都有不少人襲用宋代的有關‘味’的名稱以及觀點。

주제어 : 詩味、宋代、歐陽修、梅堯臣、魏泰、蘇軾、張戒、楊萬里、姜夔、嚴羽、朱熹、平淡、含蓄